

# 노사 기정진 소장자료 3000점 기탁

조선 후기 성리학파 대표 학자 친필 유묵 등 당대 정신문화 담겨 한국학호남진흥원 목록집 발간



기증기탁목록집.



노사 기정진 종가가 최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소장 자료를 기탁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노사(蘆少) 기정진(1798~1879)은 조선 후기 성리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다. 그는 한국 유학사상의 한 획을 긋는 학문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장성군의 진원면 고산리에는 고산서원이 있다. 이곳에는 노사 선생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배향돼 있으며 매년 봄, 가을 유림들이 제를 봉행하는 등 학덕을 기린다.

최근 노사 기정진 종가의 소장자료 3000점이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호남진흥원)에 기탁돼 화제다. 이번 기탁은 홍영기 순천대 명예교수의 제3대 원장 취임 직후 이루어졌는데, 홍 원장이 노사학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기탁은 그의 미가 남다르다.

호남진흥원은 조미은 부장은 "기정진의 친필 유묵을 비롯해 호남 최초 의병장인 송사 기우만(1846~1916)의 초상화, 간찰 자료 등 호남 인물과 당대 정신문화와 가치를 담은 귀중한 자료들을 기탁받았다"고 8일 밝혔다.

조 부장은 이번 기탁으로 호남진흥원이 수집한 자료는 7만 여점을 돌파했다며 "보물 3점을 비롯

해 국가등록문화재 91점, 사·도 문화재 1955점 등 지정문화재 2049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맞물려 호남진흥원은 2018~2019년에 기증 기탁된 10개 소장처를 기록한 목록 '국학자료 기증기탁목록집 I'을 발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곡성 이천서씨 서민수', '광주 윤상원 열사 및 윤석동 일기자료', '무안 반곡 죽헌공 후손가', '면파공 후손가'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 1100여 점 상세목록이 유형별로 정리돼 있으며, 소장경위를 비롯해 주요도판 등 목록이 기재돼 있다.

10개 소장처는 앞서 언급한 곳 외에도 '나주 금호사'를 비롯해 '장흥 영광김씨 삼우당', '화순 도암 한산이씨 관해 후손가', '영암 평산신씨 신여의 후손가', '곡성 덕양서원', '보성 평산신씨 신연 후손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목록집은 소장처별로 소장경위 외에도 자료의 도판을 제시해 소장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연구 활용에 초점을 맞춰 고문서, 유물 등 유형별로 목록을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안동교 부장은 "앞으로도 목록화가 완료된 기증

기탁 자료에 대해 목록집을 간행하고 해제집, 영인본, 탈초번역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집을 꾸준히 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남진흥원은 설립 7년차인 올해 호남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 진흥하는 허브기관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호남문화 국역서, 기증 기탁자료 해제집, 목록집, 영인본 등 발간이 100권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국비 23억원 등을 지원받아 호남 관련 자료를 발굴, 보존하는 DB화와 연구를 병행하고 성과공유회도 열 계획이다.

호남 공동체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향약 및 동계, 누정과 원림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문화재청, 사·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영기 원장은 "정신문화 재조명과 호남의병 학술연구 기반 조성 등 호남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진력할 것"이라며 "민족문화의 균형발전과 호남한국학의 전통을 잇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강자와 약자... 현대 해석 입힌 '수궁가'

국립남도국악원 '창극 산전수전 토벌가' 다음달 2일 진악당



'창극 산전수전 토벌가'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여보 입자 그런 소리 마오. 거긴 잘못 끼어들면 패가망신은 둘째요/ 역적으로 몰려 목이 썩- 가장이 죽어나오."

국립남도국악원이 2024 국립민속국악원 교류 공연으로 '창극 산전수전 토벌가'를 3월 2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판소리 수궁가의 소리에 별주부의 난세 생존기를 가미, 동물의 눈을 통해 강자와 약자의 대립과 갈등을 풍자한다.

별주부는 한직에 머무르며 조직에 충성하는 중년 자라다. 출세를 바라는 가족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토끼 간을 구하려 욕지로 나간다. 한편 별주부는 토끼를 만나 수궁으로 떠나자고 설득하는데..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온 조광화가 극작 및

연출을, 강상구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했다. 명창 왕기석과 명고 조용안이 함께 작창과 음악감독을 맡았다.

소리의 이면을 살린 전통 창극의 진수와 골계미 등이 깃들어 있는 작품이다.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기악단, 무용단이 총출동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립민속국악원 관계자는 "은둔자였으나 수궁에서의 사건을 통해 지혜를 깨닫고 영웅으로 변신하는 토끼, 권력의 모순을 겪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별주부가 등장한다"며 "두 영물의 이야기는 삶의 교훈은 물론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일본 시전문지 '나주출신 저항시인' 조명

'시인회의' 2월호... "이석성·정우채·박준채 생애 강렬"

'나주 출신 저항시인 이석성, 정우채, 박준채는 독립운동 초기에 참가한 시인들로 일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애를 접하고 강렬한 자국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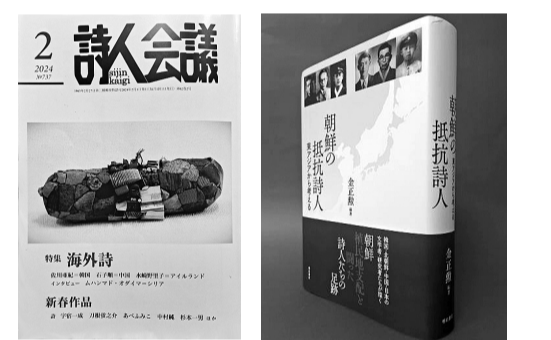
일본의 시전문지 '시인회의' 2월호에 소개된 '시인회의' 편집장 시바타 산키치 시인의 소감이다.

지난 12월 출간된 '조선의 저항시인-동아시아에서 바라본다' (아카시쇼텐)가 일본의 시전문지 '시인회의' 2월호에 소개돼 눈길을 끈다.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에 따르면 '조선의 저항시인'은 일본민주주의문화회 평론가가 책을 보내 '시인회의' 편집장 시바타 산키치 시인이 읽고 직접 비평을 소개했다. '시인회의' 2월호 '보다, 듣다, 읽다'라는 코너에 실린 서평 제목은 '조선의 저항시인을 읽고'.

서평에서 시바타 시인은 "독립운동의 가혹한 탄압 하, 역사의 배후에 묻혀 있던 시인들의 작품이 자료를 정독하며 연구를 진행해(그 일부를 '시와 잡지'에 게재) 새로 일본이 가한 식민지 지배의 잔혹성을 조명했다"고 언급했다.

책에는 특히 저항시인들의 이념 세계를 주목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바타 시인은 "그들은 일본 유학 등으로 좌익적 지식층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었고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적 시야로 제국주의와 대결을 저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도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해 애매한" 상태이며, "우리는 계속 역사를 배우서 그러한 기반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교수는 "이번 '조선의 저항시인'이 일본의 '시인회의'에 소개된 것은 오늘의 한일 양국 관계에 비춰볼 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이 50대, 삶의 의미와 가치 깨닫다

류재준 박사 '삶은 그냥 견디는 것이다' 펴내

"50대 중반에 접어들니 '삶은 견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은 만만치 않지요. 더러 비워야 한다는 마음이 나 자신을 버겁게 짓누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마음까지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곤 하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류재준 전 광주시 균형발전전문위원이 최근 에세이집을 냈다.

'삶은 그냥 견디는 것이다' (북랩)라는 다소 철학적인 제목부터 시선을 끈다. 사는 동안 삶의 희비곡선을 통과하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인데 저자에게도 그와 같은 곡절이 있었던 모양이다.

류 박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부모님 두 분을 여의는 아픔을 겪었다"며 "부모님과 추억은 내 기억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말로 책을 발

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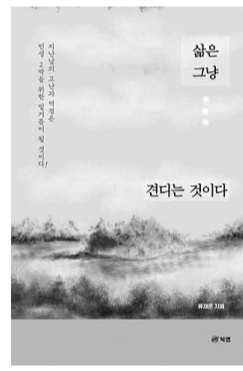
이번 책은 부모님 빈자리와 기억될 외에도 일상에서 겪은 일들에 대한 단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에세이라는 장르 자체에 충실한 글들이다.

저자는 도시·지역개발학 분야의 박사임에도 문학적인 감성이 풍부한 인문학 전공자의 기질을 지녔다. 지금까지 펴낸 책 '류재준의 인생독서', '류재준의 서평독서'가 말해주듯 그는 자신만의 글을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거센 폭풍우와 비바람이 나한테만 모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생의 섭리를 보여준다. 세잔 비바람도 잠시 후면 잦아들 것이다. 어둠은 늘 어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짙은 어둠을 이겨내야 비로소 환한 빛을 볼 수 있다."



류재준 박사



에세이집을 내는 과정에서 퍼즐 맞추듯 이어 붙인 기억들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말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고투의 과정이 어려웠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는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세대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며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